

월요광장

콘텐츠 핵융합으로 만드는 문화의 태양



송성각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는 것도 융합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태양이 핵융합을 통해 '생명의 유지와 진화'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를 무한대로 생산하듯, 콘텐츠 분야에서도 융합을 통해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해 낸 성공 사례들이 있다.

'융합'이 시대정신이 되어가고 있다. 10년 전 '통섭'이라는 개념을 우리 사회에 소개하며 신선한 지적 충격을 안겨 주었던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의 설명을 다시 들어보자.

융합은 사회 각 분야에서도 창조적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각색의 하이브리드 장르를 만들어 내고 있다.

법조칼럼

배려 운전을 위하여



박정희 광주지검 형사2부 검사

운 것이 아니었다. 차로를 변경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10여년이 흐른 지금은 자동차 운전이 조금 익숙해졌다. 보행자, 앞·뒤·다른 차로부터 진행하는 차량, 신호등, 횡단보도, 차량의 진행속도 등을 고려하면서 운전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자동차 운전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을 때는 사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준비하면서 보았던 것들은 교통신호 정도였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위한 문제집에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시험문제를 맞추기 위한 내용들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표한 바 있다. 문화창조 융합벨트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와 민간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문화창조융합본부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이다.

우선 올 연말 문화창조 벤처단지가 개관될 예정이며, 내년 3월에는 문화창조아카데미가 개소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을 맡고 있는 이 두 곳 모두 바쁘게 준비되고 있다. 다양한 융복합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이 입주하는 벤처단지는 높은 경쟁률을 거쳐 입주기업 선정이 완료되었다.

또한 새로운 한국형 융합 콘텐츠 프로젝트에 대한 연구개발과 핵심 창작 인재를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문화창조아카데미는 현재 교수진 선발을 완료하고, 교육생인 '크리에이터'를 모집하고 있다.

이제 광주의 다양한 창작자들뿐 아니라 아시아의 젊은 창작자들이 함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문화예술과 융합 콘텐츠를 만들어 낼 것이다.

유일한 응시자격 조건이다.

선발된 크리에이터는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융복합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며, 연구보조금과 창업 지원, 인턴십 및 해외 쇼케이스 참가 등 다양한 특전이 제공된다.

특히 아시아문화전당 내에 있는 문화창조원이 문화융합 콘텐츠의 산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창조원은 인문·공학·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협력하여 새로운 융합 콘텐츠를 만들고, 보여주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이제 광주의 다양한 창작자들뿐 아니라 아시아의 젊은 창작자들이 함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형식의 문화예술과 융합 콘텐츠를 만들어 낼 것이다. 빛고을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인 광주에서 문화융합을 통해 태양과 같은 에너지가 발산되고, 우리나라와 세계를 문화의 빛으로 밝게 비추길 기대한다.

社說

안철수 탈당으로 불가피해진 야권 재편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새로운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어제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혁신해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려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먼저 사과부터 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새정치연합을 혁신해 정권을 맡길 수 있는 정당으로 바꾸려는 국민의 염원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먼저 사과부터 했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양보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도 했지만 정권교체는 실패했다"며 지난날을 회고한 뒤 "이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마구잡이 단속보다 공영주차장 늘려야

광주 지역 일선 구청의 마구잡이 식 불법 주차차 단속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무작정 딱지만 떼는 게 아니라 주차장 면적도 확보해야 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 들어 광주에서는 모두 44만959건의 불법 주차가 단속됐다. 과태료만 해도 170억 원가량이나 걸렸다. 단속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 교통 흐름과 무관한 도로에서 스티커를 끊는 일도 다반사다.

파라서 좀 더 유연한 단속이 절실하다. 같은 위반도 교통 흐름에 얼마나 방해됐는지 따지고 생업을 위해

형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쏠린다.

일단 안 전 대표의 탈당으로 당내 비주류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쇄 탈당이 예고되고 있다. 당장 안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냈던, 인천이 지역구이지만 영암 출신인 문병호 의원이 빠르면 오늘 탈당한다고 한다.

안 전 대표는 "대통령 후보를 양보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도 했지만 정권교체는 실패했다"며 지난날을 회고한 뒤 "이제는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는 정치세력을 만들겠다"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어차피 문재인 체제로는 다음 총선 승리를 기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었던 만큼 이번엔 예상되는 야권 재편과 지역변동을 한 가닥 또 다른 기대를 갖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불가피할 경우엔 융통성 있게 대처한다면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교통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지난해 광주에서 늘어난 공용주차장은 고차 54면이 전부다. 반면 주차 단속용 카메라(CCTV)는 경쟁하듯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의 땅값은 크게 오르고 예산은 한정돼 있어 공영주차장 수 확대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안다. 그렇더라도 마천 시에서 공공기관이나 교회 등의 시설물을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공유문화'(共有文化)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확산시킨다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한때 터부시 됐던 성형수술에 대한 인식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하고 있다. 급기가 '아름다움도 경쟁력'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마저 형성되면서 성형에 대한 거부감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성형수술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됐다. 기원전 800년, 인도는 범죄자와 형실이 나쁜 여자에 대해서는 코를 베어 내는 가혹한 처벌을 했다.

이때 '수수타르'라는 의사가 돈을 받고 코를 재건해 주는 시술을 했다. 당시에는 마취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참아야 했고, 세균 감염으로 사망하는 일도 많았기에 목숨을 걸어야 했다.

로마 시대 검투사들 성형수술을 받았다. 결투로 인해 생긴 실패의 상처를 지우기 위한 것이었다.

15세기 유럽에는 매독이 창궐했다. 매독이 증상은 코가 녹아내리는 것이었다. 당시 '타글리아코치'라는 의사는 고대 인도의 코 재건법으로 코가 휘

손된 환자에게 성형수술을 했다. 교회는 이를 강력히 반대했지만 그는 강행했고, 결국 파문까지 당했다. 그는 코수술을 해 주면서 '눈을 즐겁게 하기'가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공인된 세계 최초의 성형수술은 1917년 8월8일의 얼굴 성형이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월터 여'라는 군인은 미사일 폭발로 인해 눈꺼풀과 눈 주위 피부를 모두 잃었다. '성형수술의 아버지'로 불리는 해럴드 길리스가 피부 이식을 통해 새 얼굴을 만들어 줬다.

애초 성형수술은 남에게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성형수술의 근본 취지를 망각한 채, 수익만을 좇아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수술마저 권하는 전문의는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성형을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다만 유혹이 강할수록 중독의 위험이 크고,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성형수술 부작용에 따른 의료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채희홍 사회2부장 chae@

기고

함께하는 미래 '사회적 경제'가 만듭니다



박승현 광주시 서구청 경제과장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특성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민 모두를 번듯없이 살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의 어려움을 국가라는 가족이 미처 돌보지 못할 때 주위에서 나를 돌봐줄 수 있는 이웃, 그것이 바로 '사회적경제'입니다. '사회적경제'의 핵심 요소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은 대기업이 기부하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단순히 착하기만 한 조직이 아니라 기업이라는 용어가 대변하듯 영업을 해서 이윤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

는 일반기업이 주주의 최대 이윤을 목적으로 물품을 생산·판매한다면, '사회적기업'은 영업 이익의 3분의 1까지만 주주에 배당으로 나눠줄 수 있고, 나머지 3분의 2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사회서비스 형태로 환원해야 합니다. 만약 지역민이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소비한다면 '사회적기업'은 물건을 팔아 남은 이윤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고용 취약 계층을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독거노인을 돌보고, 장애우의 자립을 돕고, 결식아동의 점심을 해결해 주는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의 이윤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사회 문제가 개선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경제'를 착한경제라고 부르는 까닭입니다.

'사회적경제'의 장점을 일찍 접한 젊은 세대들은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는 공정무역 제품을 이용하고, 공정

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며 관심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사회적기업'의 크라우드 펀딩에 소액주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지역은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소비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되는 '사회적경제'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소비, 우리를 위한 경제, '사회적경제'는 모두가 상생하는 경제입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기업'이라는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내가 모르는 사이 내 주변을 돌보는 착한 '사회적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제품은 기업의 창업 목적만큼이나 생산 과정도 건전하고 투명합니다.

착하고 이로운 '사회적기업'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 나아가 국가의 미래를 튼튼하게 하는 투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가는 행복한 미래, '사회적경제'가 함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heade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and multiple rows of contact and publication information.